



제35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6월 20일~23일까지 워싱턴 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열렸다. 신임 총회장에는 반기열 목사가 선출됐다.

##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감 갖기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혹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 하지는 않는가?

확신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성경에 기초한다.

만일 성경에 씌어진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 미국의 영적 부흥과 복음의 본질 회복 위해 힘쓸 것

### 제35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정기총회 총회장 반기열 목사 선출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6월 20일~23일까지 워싱턴 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제35차 정기총회

를 열고 반기열 목사(인디애나폴리스 한인침례교회 담임)를 총회장으로, 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례교회 담임)를 부총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반기열 목사는 “한 해 동안 총회와 미주 한인 침례교회가 전도와 선교, 교회 개척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미주 한인 침례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목사는 또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를 통해 미국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미국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한인 2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800여 남침례회 한인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 부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6.25한국전쟁 제66주년 기념 추모예배가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6.25 전쟁 제66주년 기념 추모예배가 남가주 교계 연합으로 개최됐다. 매년 이 행사를 주최해 온 남가주한인목사회와 함께 올해는 남가주교협, 남가주장로협,

군사관선교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LA한인회, 미주한인재단 LA지부 등도 주관 단체로 참여했다. 한미장로교회에서 6월 25일 드린 예배에서 엄규서 남가주한인

목사회장은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 위에 기적이라 불릴만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다. 이제 조국에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길 바라며 우리는 자주적 평화통

## “한반도 평화통일 이뤄야”

남가주교계연합...6.25한국전쟁 66주년 기념 추모예배

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권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의 뜻을 계승해 미래 세대에게 통일 조국을 안겨줘야 한다”고 했고 서면으로 기념사를 보낸 이기철 LA 총영사는 “6.25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희석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때,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강신권 남가주교협 회장, 이창건 장로협 회장, 김희

창 군사관선교회장 등이 추모사를 전했다.

설교는 김재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가 “창문을 열고 살다간 사람(단6:10)”이란 주제로 전했다.

목사장로부부합창단, 한아름 합창단 등이 특별 찬양 및 연주를 했고 6.25 희생자와 참전용사, 유가족을 위해, 조국 통일과 인류평화를 위해, 미국 교포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해, 조국과 미국 대통령, 정부 위정자를 위한 기도 시간도 각각 마련됐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얼라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행복목회 컨퍼런스 Happy Ministry Conference**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  
 세상에서 행복을 줄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한다.  
**행복의 답은 예수!**  
**행복 메뉴얼은 성경!**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이다.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는 자리에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6.8.15 10AM ~ 8.16 10PM**  
**은혜한인교회**

대상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역자  
 등록비 1인 \$100 부부 \$150(교재 및 식사제공/숙박 개별)  
 당일등록: 9~10AM  
 참가문의 714-446-1000, 1004  
**은혜한인교회 사이트 http://www.gracemi.com**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후원: OC 교회협의회, OC 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JAMA



사우스베이 나눔장로교회가 LA한인타운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사우스베이 나눔장로교회 이전감사예배” 아이티지역에 선교사 파송...통일 준비에도 앞장서는 교회

사우스베이 나눔장로교회(담임 김영구 목사)가 창립 6주년을 맞아 LA한인타운으로 예배당을 옮기고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또 교회장립 이래 처음으로 아이티 지역 선교사 파송예배도 함께 드렸다.

6월 26일(주일) 오후 4시에 드려진 예배는 라이프신학대학, 남가주한인목사회, 대신총회 미주노회 관계자들과 축하객들이 분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드려졌다.

김영구 담임목사는 “탈북민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창립 6주년을 맞아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다”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성도들 입에도 이번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돕는 손길을 보았다”면서 “탈북민이 선교

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분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구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감사예배 후에 선교사 파송식이 이어졌다.

최명상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이해룡 목사(전 라이프신학대 학장)가 “하나님의 선교역사”(행27: 20-26)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나도 탈북민이다. 더 많은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나눔장로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이목사는 또 “비율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데려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배 안의 사람들을 로마에 복음을 전할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어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이어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됐다. 김영구 담임목사가 선교사를 소개한 후 나눔장로교회 청년부의 찬양이 이어졌다. 김영구 목사가 김부겸 선교사와 교인들에게 각각 문답을 진행한 후 김상기 목사(사랑장로교회 담임)의 파송기도 후에 김영구 목사가 선교사 파송을 공포했다.

이어 지동근 목사(대신총회 미주 노회장), 강지원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박병구 목사의 축사 김중용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김호 목사(나성중부교회 담임), 다니엘 권 목사(유나이티드신학대학교 총장)의 권면의 말씀 후에 이철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김영구 담임목사는 “나눔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이다.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탈북민을 깨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310-404-6219  
\*주소: 3407 W 6th st, #412  
LA, CA 90006

이인규 기자



제12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6월 27일 열렸다.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제12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열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제12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열린다. 이번 제12기는 오는 7월 18일(월) 오후, 19일(화) 하루, 24일(주일) 오후, 31일(주일) 오후 갈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90620)에서 열린다.

총 5번의 강의를 성요셉 목사, 이준성 목사, 권준 목사, 이재환 목사, 주창국 본부장이 전하게 되며 이상

훈 목사, 석종민 목사 등이 간증한다.

이번 아버지학교의 진행을 맡은 김인구 목사는 “아버지학교에는 제 인생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었다. 성령의 사역으로 아버지들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된 목회자 아버지들을 만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록비: 120불  
\*문의: 213-700-4689

김준형 기자

### “진정한 형통은 주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 예수인교회 박갑수 목사 초청 찬양 집회 성황리에 열려

찬양사역자 박갑수 목사 초청 찬양집회가 6월 10일 오후 예수인교회(담임 박정환 목사)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박목사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2007년 3월 말, 이곳 LA에서 뇌종양으로 갑자기 쓰러진 후, 이어진 동생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미주에서 찬양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LA에서 찬양사역자로 섬기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박목사는 예수인교회 찬양집회를 가진 후, 이 교회 찬양사역자로 계속 섬기게 됐다.

박목사의 주요 찬양곡으로는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기도, 형통 등이 있다. 특히 만사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가사로, 참석한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은혜를 끼쳤다.

\*집회 문의: 424-903-9665

김만영 기자



OC교협 6월 정기 월례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OC기독교교회협의회 6월 정기 월례예배 드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가 6월 23일 정기 월례예배를 남가주벤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드렸다.

주요 임원들과 소속 목회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 2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특강 순서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비영리 단체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사역이 소개됐다. 민승기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1

부 예배는 더글라스 김(청년선교위원장) 기도, 오병익 목사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오병익 목사는 “복음의 능력”(롬 1:16-17) 주제로 설교했다.

오목사는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다”면서 “영적,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며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

가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이효우(본회 수석부회장)의 광고에 이어 양금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어진 2부 특강에서는 로사 장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이 한미특수교육센터 사역을 설명했다.

10명 중 1명이 주의력 결핍장애, 45명 중 1명의 아이들이 자폐증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와 테스트에 한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기 진단과 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OC교협 회원들은 임현수 목사의 건강과 조속한 석방, 미국의 대선과 OC교협 산하 교회 등을 위한 기도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 2000년, 장애자 한인 가족을 돕기 위해 세워진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기업인, 자선기관 등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562-926-2040

이인규 기자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사 (M.Div.) & 신학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미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제36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가 6월 25일 세리토스 소재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에서 개최됐다.

# “교회연합 체육대회 통해 다져지는 믿음의 향연”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주최 제36회 교회연합체육대회와 어린이 사생대회가 6월 25일 세리토스 소재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에서 12개 교회, 16개 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예배, 2부는 체육대회로 나누어 개최됐다. 이 대회는 6.25한국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고 조국의 복음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매년 6월 25일 경에 열린다.

1부 개회예배는 총무 이관우 장로의 사회로 윤우경 회장의 환영인사, 자문위원 양금호 목사의 기도,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승기 목사의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주주하원 영 김의원도 축사로 함께 했다.

윤우경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36년 전 6.25한국전쟁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체력단련과 교회 연합을 위해 시작된 교회연합체육대회가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6.25전쟁 66주년 기념 제36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  
**12개 교회 16개 팀 등 250여 명 참가**  
**첫 출전한 루마니아 크리스천교회 족구 우승**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면 문제 앞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가주주하원 영 김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화 민주 의원들도 분주한 의정활동 중에 소프트볼 경기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한다"며 "교회연합 체육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승기 목사는 "창조된 모든 생물들은 빛, 공기, 물과 온도로 자란다"며 "성도 역시 인생에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의 온도로 성장을 이루고 오늘 경기가 체력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축도는 처녀 출전한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담임 피터 최 목사가 인도했다.

2부는 윤 회장의 진행으로 족구 경기와 동서남북 친목운동회, 어린이 사생대회 등이 진행됐다.

영 김의원의 시축으로 시작되어 오후 4시경 결승전이 끝난 주종목 족구경기는 일반교회부와 초청교회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일반교회부는 은혜한인교회와의 결승전 끝에 처녀출전한 루마니아크리스천교회가 우승했다.

루마니아 교회 팀 주장은 "한국 교회들이 체육을 통해 연합과 친목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이

런 기회를 통해 한국형 경기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이 기쁨"이라고 밝히고 동유럽 쪽에도 족구와 비슷한 Footnet이라는 경기가 백여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진행된 어린이 사생대회는 기록적인 무더위와 각 교회들의 VBS등의 일정과 겹쳐 사뭇 축소되어진 행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어린이들은 그동안 갖고 닳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며 은혜를 더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5살 어린이부터 9순에 가까운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가 동서남북 4개 팀으로 나뉘어 친선축구와 천로역정 이 어달리기, 어린이 육상 등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평연 임원진은 "이번 체육대회는 시온마켓의 적극적인 후원과 아리랑 마켓의 도움으로 치뤄졌

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기업의 참여에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체육대회 결과  
 \*족구일반부 우승: 1등 루마니아 크리스천교회, 2등 은혜한인교회 1팀, 3등 복음의빛교회/ANC은 누리교회/족구초청부 우승: 1등 Kids of Jesus Christ, 2등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3등 두나미스장로교회, 갓즈비전교회  
 \*어린이사생대회 우승: 대상 최고은(여, 10세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초등(10~15세) 1등 김상하(여, 11세) 남가주순복음교회/초등(6~9세) 1등 이은성(남, 8세) 남가주순복음교회/유치(6세 미만) 1등 최은유(여, 5세)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문의:213-500-5449(윤우경 회장)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제공]

## “선교기금 모금 위한...교회 친선 탁구대회”



과거 열렸던 탁구대회 모습. ©갈보리선교교회 제공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가 '제12회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 교회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교회는 탄자니아와 타블루 미전도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20년 째 섬기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멕시코와 아리조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일본 선교도 한다.

\*일시:7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부에나파크중학교 강당  
 \*주소: 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참가비: 단체전(150불), 개인전(30불)  
 \*접수마감: 7월 10일  
 \*문의: 714-229-8492  
 \*이메일: calnativejohn@gmail.com

## 최덕신 전도사 찬양 콘서트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최덕신 전도사 한국 CCM선구자

한국 CCM 선구자로서 주찬양선교단, 개인 앨범들, 그리고 수많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국 교회를 섬겨온 최덕신, 그의 찬양과 나눔 콘서트 가 열린다.

그이름, 예수 이름높이세, 주의 은혜라 등을 포함 최 전도사는 300여 곡의 찬양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찬양 사역자이다.

\*일시:7월 9일(토) 오후 3시  
 \*장소: 십자가은혜교회  
 \*주소: 1147 E Philadelphia St, Ontario, CA 91761  
 \*입장: 무료  
 \*문의: 310-850-3109  
 \*웹사이트: www.graceofcross.org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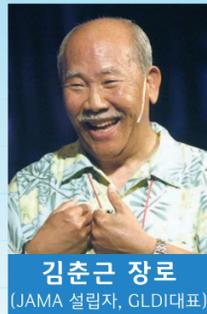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2016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설립자, GLDI대표)

새라 김 사모 (TVNEXT 대표)  
 노형건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이용기장이 선교단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 국제음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나성순복음 국제음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myouth@gmail.com  
 Fax : 951-928-4017





6.25한국전쟁 66주년 기념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6월 26일 타코마중앙선교교회에서 열렸다.

### “한민족 평화통일 반드시 이뤄야”

#### 주빌리 6.25통일 구국기도회...남한 경제력 바탕으로 북한 주민 민심 이끌어내야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지도위원 오대원 목사, 대표 권준 목사, 총무 박상원 목사)는 6월 26일 타코마중앙선교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6.25 동족 상잔의 아픔을 기억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강연한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박사는 “통일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손으로 직접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두가 통일 무관심으로부터 벗

어나 남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주민 의식 변화를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민 박사는 이어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이며, 무력통일 방법은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향해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녘 주민들의 민심을 바른 길로 이끌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박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

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한우리통일연구원과 통일대박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박상원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분단의 고통을 끊고 통일로 일궈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정치 사상과 교파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22. 예수가 결혼하였다면

예수의 가르침과 서른셋 생애를 알아가다 보면, 예수에게 아내와 자녀는 없었을까 생각이 미치게 된다. 동서방을 불문하고 그정도 나이이면 결혼은 물론 아이도 여럿 있기 마련이다. 수년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짓으로 자신들이 예수의 숨겨진 부인과 아들이라 하는 자들이 나와 제국전체의 교회들을 발각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다. 혹자는 만약 예수가 결혼하였다면 기독교회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던데,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이 인간생애의 최고경험인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흠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러했다면 더욱 인간이 이해할수 있는 말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다.

예수를 어려서부터 본 친동생 야고보 혹은 어머니 마리아가 뭐가 숨기는 것은 없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가 정말로 신이었음을 확신케 된 이들은, 뭔가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일부러라도 숨기지 않았을까 싶다. 예수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을 빼면 아무런 회고도 남아 있지 않다. 예수가 아이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경험한 실수담을 누군가 남겼다면 인간인 우리는 공감하며 위로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예수에게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나사로 정도가 친구라 할만한데 그 기록이라도 유일하게 남긴 제자요한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의 작은 고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킨 여성이며,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홀로 목격한 것도 그녀이다. 11제자와 친형제들마저 도망가는 상황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결코 평범한 제자가 아님을 짐작케 한다. 사도들의 복음서에 마리아가 여러 등장하는데 그녀에게만 고향 막달라를 붙여서 존재감을 부여받고 있지 않은가.

교회초기의 여성도들을 아우르며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가 혹시 예수의 숨겨진 아내 아니면 연인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나 개인으로는 사도들의 모든 기록과 가르침을 종합해 볼때,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예수는 시종일관 신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던 첫 기적의 밤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할만큼 사명과 시기에 확신이 있었다.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 한 여성과 배타적인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은 만무하다. 나는 예수의 생애에서 그의 숭고한 사랑과 동시에 약속에 대한 집념, 일종의 완벽주의 그리고 강한 외로움을 느낀다. 만약 예수가 결혼하였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더 어려웠을 터이니. <계속>

#### “제35차 미주침례교회 한인교회 총회 폐막”

[1면으로부터 계속]또 “큰 명령, 다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 참석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했다.

본국 지구총교회 진재혁 목사와 주님의기쁨교회 박영철 목사는 저녁 부흥회 설교자로 나서서 복음의 능력과 순수한 믿음을 전해 참석자들을 도전했으며, 선교 사역 확장 모델과 건강한 교회 시스템 등 다양한 선택 강좌를 통해 목회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본국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영식 총회장과 임원단이 참석



반기열 목사 신임 총회장

해 한국총회와 미주총회 두 총회간 선교 협력을 다졌다. 한편 서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서북미 지역의 영적 부흥과 선교 확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평택대 마드리갈 싱어즈 LA공연

“7월 16일(토) 오후 7시 30분...LA지퍼홀에서”

평택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과 교직원, 평택시민들로 구성된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단장: 김형기교수)’가 오는 7월16일(토) 저녁 7시30분에 LA Zipper Concert Hall에서 공연을 갖는다. 미국 공연은 두 번째이다.

이 싱어즈는’ 소규모 혼성합창단으로, 2014년 평택대 음악학과 교수인 김형기 교수에 의해 창단되었다. 특징으로는 카운터테너 라는 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합창단의 틀을 깨고 더욱 다양한 소리와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 싱어즈는 지난 2014년 12월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미국 LA에서 열린 신

년음악회 초청공연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지역사회의 소통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다.

평택대학교는 1912년 미국인 선교사 아더 테판 피어선 박사님에 의해 서울에서 피어선기념성경학원이 설립되었다. 그 후 1981년 평택으로 이전해 올해로 창학 104주년과 평택 35주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진리, 정의, 봉사를 교훈으로 기독교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사랑의띠선교교회 창립17주년 감사예배

사랑의띠선교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가 열린다.

\*일시: 6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사랑의띠선교교회 본당

\*주소: 1300 W Olympic Blvd #200 LA, CA 90015

\*문의: 213-736-6625



김천환 선교목사 사랑의띠선교교회

한편 이 교회 담임 김천환 선교목사는 한국 엘리트 장애인선교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세계 장애인산상대성회 참석차 7월 11일 출국한다. 김 목사는 현재 엘리트 장애인선교회 LA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 산상대회에서는 매년 1회 전국 각지로부터 오는 장애인들을 섬긴다.

\*일시: 7월 18일~22일

\*장소: 한국 포천중앙기도원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 목회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제12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OC지역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개설됩니다. 사도님, 성도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을 저희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보내주세요. 목회자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2기(6208차)

일시 | 7/18(월) 오후 4시~9시  
7/19(화) 오전 9시~오후 9시  
7/24(주일) 오후 4시~9시  
7/31(주일) 오후 4시~9시  
장소 |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 | 1인당 참가비 \$120 (교재 및 저녁식사 제공)

도와주신 분: 권준 목사(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_시애틀형제교회, 김경렬 목사\_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근수 목사\_One Hope Church, 김영찬 목사\_효사랑선교회, 김인규 목사\_예수사랑교회, 박세현 목사\_예수교회, 성요셉 목사\_소망장로교회, 이상훈 목사\_성광장로교회, 정종섭 목사\_새영교회, P테드황 목사\_메구미교회

문의 :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T(213)382-5454, 제12기 진행자 김인규 목사 T(213)700-4689



# 회복의 언약

이사야 54: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도가 넘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애타게 일러 주시고 경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에 빠져 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하시는 것처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성읍도 불타서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는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많은 장정들이 죽었는가 하면 또,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는 70년 세월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프시고 괴로우시면서 내린 불행의 경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너희가 회개할 때 용서하고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과의 새 살림 차림 소망적인 회복의 언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찌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찌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 징계하시면서 바벨론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소망을 바로 가꾸지 못하고 영육이 비참하게 버림받아서 외압에 시달려야 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당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해산, 생산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70년 계획에, 바벨론의 명예와 채찍에 붙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찌어다.” 구로는 애 낳는 수고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서 종살이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왜? 그 죄 값의 형벌이 치루어지고 회개하므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을 통하여 소망을 일깨워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시련을 몽땅 치루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내신세가 여찌 이리 되었는가 하고 반성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시키실

때에 이제 죄 값에 부쳐져서 죽을 고생 치르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엄청난 숫자로 구령(救靈)의 영적해산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 얻는 숫자가 부부사이에서 생겨나는 애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권 하나님이 보증으로 못 박아 하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까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찌어다”

그곳에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들로 가득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지금은 생산이 없고, 영적인 소망도 성과도 없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애타게 깨우쳐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찮다고 귀를 막고, 또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게 한 이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버리셔서 이방세력에 명예와 채찍아래 붙여 놓으면 그들이 영육 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멸시와 천대, 구박당여리가 되고, 또 핍박과 굶주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원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올 그 때에 내가 비로소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되 이제에는 영적 성과만을 위하여 열심히 해산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전적으로 힘쓰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장막의 터를 넓혀 미리 장소를 넓게 잡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2. 3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실 계획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계획이나 하면 장막의 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퍼고 또 말뚝을 견고히 하고 줄을 길게 넓은 터전을 마련하면 내가 좌우로 퍼지게 해 주겠고. 네 자손은 열방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지금은 죄 값으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 모든 도시를 하나님이 재건하여 사람들이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언약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사54:4-5)

죄만 짓고 미신 우상 끌어다가 음란 방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사54:6)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에 죄 값을 아주 단단히 치르게 하심으로 그 환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 온갖 행패와 구박, 이런 것이 견디기 어려워져 본 남편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키되 엄청난 조건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전날에 버림받음으로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 이사야 54장 7절~10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 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울길 찌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의 말이니라”.

산이 옮겨가고 작은 산들이 도망을 가도 천지가 변하여도 내가 너에게 회복을 약속한 이 언약은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주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소망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기 원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의 성과를 보이기만 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스바냐 3장 14절에 기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힘 있게 붙들어 쓰리라. 내가 네 지경의 터를 넓혀 줄 것이고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해 줄 것이고 결국 너로 내 오른 팔같이 붙들어 써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회복의 언약입니다. 그 성취는 단 한 가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주의 신앙,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영적인 성과를 보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을 실현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짱과 포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영적성과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채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맘껏 섬기는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토브 성경 연구

##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기억하시는 하나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잊히기 싫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아우성 치며, PR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하는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요셉을 이집트 감옥 속에서 돌아 보시고, 다윗을 광야에서 기억하시고, 에레미야를 우물 속에서 구해내시며, 빌립보 지하 감옥의 바울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돌이켜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권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특히 흥수가 끝나고 방주에 남아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 및 방주 안의 들짐승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라 하

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창 8:11).

원어로 쓰인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한다"로 혹은 이전 번역에서는 "권념한다"로 번역되었다. 권념(眷念)이라는 말은 요즈음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뜻은 아주 은혜가 된다. 이는 "돌이켜 보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동물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였다는 말씀이다.

"자카르"의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사랑 속에서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하시고 돌이켜 우리에게 애정을 베풀어주시다. 둘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즉시 바람을 일으켜 대홍수의 물이 물러가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닫아주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그분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 멀티태스킹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여러 일을 못 한다고 했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모노태스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바쁜 세상에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요, 아니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둘 하나를 던져 새 두 마리, 세 마리를 잡으려고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고, 빨래를 개면서 티비 시청하고, 운전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기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책 읽고,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텍스트하고 인터넷 기사 읽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출장 가면서 컴퓨터 두들기고,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

넷 서치와 스포츠 업데이트하고, 설교 들으면서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자면서라도 설교 다 들었다고 우기시니깐^^), 이 모든 것들이 어찌면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다.

유튜브 영상에서 중학생들이 친구를 만나러 온 약속 장소에서 인사 후에는 대화가 끊기고 서로 스마트폰을 쓰며 각자 일에 바쁜 모습을 보았다.

시간의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인격적인 관계와 풍성한 교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도 예배 드리면서 조명, 마이크, 실내용도 등 예배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면 관계자에게 가끔 텍스트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나름 수시로 필요에 따라 반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친구 만나러 나와서는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비인격적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멀티태스킹보다 모노태스킹이 점점 더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싶다. 우리 모두 셀폰 끄고 예배 드리자.

## 올바른 변화



이동준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사울에게 보내셨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울이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부쳐 주셨다.

둘째, 세상 것과 구별됨으로 올바른 변화를 이루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은 세상적인 욕망과 자랑, 명예욕 때문에 희랍어의 이름 '사울'로 불렸다. 잘못된 종교의 열심은 사울처럼 무서운 일을 대담하게 저지르게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말고, 세상 것에서 멀어져야 한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올바른 변화'된 삶을 사는 올 한해의 전반기 결산의 해로 살게 될 것이다.

셋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올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눈까지 멀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울을 만지시므로 사울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눈이 멀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과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주님의 음성은 율법대로 살았던 사울에게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넷째,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눈에 덮여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다.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남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세상을 보는 눈에서 영적인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귀한 그릇이 된 것이다.

사도바울의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변화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행9:10-17). 성경을 알되 구약에만 치우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 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이 일이 가장 잘못된 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올바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겪은 변화는 어떤 변화이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변화의 삶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지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야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기도할 때 올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제 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 일 시 : 2016년 8월 20일 8AM ~ 4:30PM
- 장 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참가비 : \$20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 대 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 오전강의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종 목사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  
이민목회의 출구



주강사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위원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안수

ECA 소속 목사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역검증을 받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내지않아 목사자격이 상실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오후강의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김송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민승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가정목회도 중요합니다.



조진용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1.5세 목사의 이민목회



Rev. Esau  
(Church on pearl, IFNV)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성요셉 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희문 목사  
(LA 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성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교회실버사역



Rev. Stephen Feinstei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Joseph Choi  
(현 육군대위 및 병원원목)  
원목사역



이준성 목사  
(ANC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교회

군목 원목 강의 예약 필요 / 오후 강의 12개 중 3개 선택수강 가능

주최: US 채플린 연구소 / 주관: 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후원: ECA 한인연합회, OC 교회협의,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 기독일보

연락처: (213) 800-1825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6.25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과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주제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세미나가 열렸다.

### “바른 신학 바른 교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신학 세미나...동성애, 이슬람 등 민감 사안 주제로 열려

한국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대표회장 림준식 목사, 이하 협의회)가 지난 6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를 살리는...바른신학, 바른교리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발제자들은 이단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고, 현재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 대형이슈로 떠오른 동성애, 이슬람의 잘못된 점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정미경 전 의원과 이해훈 의원의 목소리도 들었다.

먼저 최태영 교수(영남신대 조직신학, 교회신학연구소장)는 "이단에서 진리로"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교회 내 이단발원은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이단에 대해 너무 부정적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단 교설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행하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나친 적개심을 갖기 보다는, 긍휼과 관용, 인내, 진리를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

호연대 대표)는 "동성애 문제와 한국교회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동성애 옹호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들에 대해 지적, 반박하고, "이는 사랑과 포용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수열 목사(한기총 이슬람대책담당, 나라사랑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이슬람 유입을 저지하라!"는 발표를 통해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할랄'산업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의 보편적 미풍양속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정책으로 할랄산업 지원을 하는 것을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성희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요삼1:1-4)란 주제로 개회예배 설교를 전했으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이사장 송일현 목사가 축도했다. 행사는 건전신앙수호연대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유사기독교연구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등이 공동주관했다.

박용국 기자

## “범국민 통일운동 시작과 국제사회 동참 촉구”

서울광장서 '2016 통일한국국민대회' 열려...통일, 밀물처럼 올 것

사상 최대 규모 범국민 통일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동참을 촉구하는 '통일한국국민대회'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통일한국국민연대 주관으로 열렸다.

300여 명의 탈북자를 포함해 5천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정근모 전 과거처 장관의 축사로 시작했다.

테너 김충만, 피아니스트 송희영 목원대 교수, 평양권선경예술단의 공연과 미국, 독일, 네팔 등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보내온 국민대회 지지 영상 메시지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준 UN주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탈북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용기와 공로를 치하했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이 남아 아닌 '우리 민족'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탈북청년 대표로 참석한 백

요셉씨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북한 해방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 호소문은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반인도적 범죄를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중단시키고 북한을 해방시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정은을 비롯하여 집단 학살 또는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제소할 것"을 포함한 5가지를 요구했다.

평양 출신이며 오랜 세월 탈북자들의 대모로 존경을 받아 온 주선에 전 장신대 교수가 '통일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통일한국 만세'를 외치는 장면은, 3.1운동의 장엄함을 연상케 했다.

장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하고 북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는 '자유통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통일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 세계적 통일운동을 통일의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밀물처럼 올 것이며, 전 세계에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통일한국을 위한 연합기도회에서는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이태희 목사(성북교회),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본부), 김성욱 대표(REMO 청년기도운동), 이애란 박사(탈북자, 자유통일문화원), 조요셉 목사(북한연구원 원장) 등의 인도로 교회와 남북한을 위한 회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통일한국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통일한국을 외치며 9시 30분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을 돌아오는 촛불시가행진을 벌였다.

김진영 기자

##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지키자”

대신, 제3차 미스바 기도 대성회 개최

예장 대신총회가 제66주년 6.25상기 위기의 나라와 민족,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제3차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23일 오전 수원명성교회(담임 유만석 목사)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이주훈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이정환 장로의 기도와 이진해 목사(신영통제일교회)의 성경봉독, 수원명성교회 성가대의 찬양 후 증경총회장 최복규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시 127:1, 마 7:24)'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최복규 목사는 "저는 6·25 당시 전선에서 직접 뛰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떠들지만, 그때 만한 위기가 어디 있었느냐"

며 "그러나 당시 목회자들의 식을 전폐한 기도와 맥아더 장군의 결단이 절망에 빠진 나라를 살렸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결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금은 보훈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예배는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의 광고와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주제포럼에서는 3가지 발표와 기도를 진행했다. 먼저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 사회로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기도는 인천노회장 한상운 목사가 인도했다.

최낙중 목사는 "믿었던 청교도의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나라 미국도 무너졌고, 영국과 캐나다, 호주까지 다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는 동성애라는 '골리앗'에 맞서 하나님에 의지해 싸우는 다윗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도하면서 행동도 함께해야 한다"며 "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

도, 침묵하다가 크게 소리치는 소수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기 박태현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유종국 목사가 '이슬람 포교 및 할랄식품단지 건립 반대'에 대해 전했으며, 서울북노회장

박성대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서기 김지종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가 '총회와 산하 학원, 한국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했고, 부흥사회 대표회장 이태운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대웅 기자

#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ceu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PCUSA 내 한인교회, 지역 제한 없이 한미노회로 이전 가능”

## PCUSA222차 총회 결산...사무국 내 한인 사무실 공식 신설 등 변화 커

미국장로교(PCUSA) 제222차 총회가 6월 18일~25일까지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 한인 테스크포스가 상정한 총회 사무국 내 한인 사무실 신설과 동부한미노회가 상정한 한인교회들의 지역 제한 없는 한미노회 이전 등의 제안이 채택되는 등 한인교회들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다뤄졌다.

또 4년 임기의 서기장에 허버트 넬슨 목사(Rev. J. Herbert Nelson)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교단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교단 및 한인교회 관련 결정사항들을 정리했다.

### ◆총회장(Moderator) 및 서기장 선출

PCUSA 제222차 총회에서는 공동 총회장(Co-Moderators)으로 데니스 앤더슨 목사(Rev. Denise Anderson·National Capital 노회)와 쟈 에미스톤 목사(Rev. Jan Edmiston·Chicago 노회)가 선출됐다. 이들은 다음 2018년 세인트 루이스 총회 때까지 미국장로교를 대표해 공동으로 총회장직을 감당한다.

또 지난 8년간 미국장로교의 서기장직으로 섬겨오다 은퇴하는 그레데 파슨스 목사(Rev. Gradye Parsons)의 후임으로 허버트 넬슨 목사(Rev. J. Herbert Nelson)가 선출돼 앞으로 4년 간의 임기 동안 섬기게 된다.

### ◆한인교회들의 변화

지난 221차 총회(2014년 Detroit)의 결정에 따라 구성되었던,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의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년 간의 작업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 및 추천사항으로 올린 헌의안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44:0)로 통과되어 본 회의에 상정되었고,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인 테스크포스 팀의 헌의안은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와 상황에 근거한 배경 설명과 총 6개의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총회 사무국(OGA·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교단 전체의 행정과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한인 스태프를 두고 한인 사무실이 공식 운영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한인 목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PMA(Presbyterian Mission Agency) 안의 한인목회실(김선배 목사)이었다. 앞으로는 한미노회를 직접 돌볼 뿐만 아니라 행정과 운영적인 면에서 한인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한인 사무실이 OGA에 공식 개설됐다. 이에 총회 산하의 한인 교회들을 위한 상주 사무실은 선교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MA와 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OGA 2곳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일반 미국 노회들에 비해 행정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한미노회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서부 지역에 한미노회를 신설한다. 지난 총회 (2014년)에서 남가주/하와이 대회 소속의 한미노회(남가주 지역)가 해산했는데, 특별위원회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 지역에 한국어로 운영할 수 있는 노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고 서부 지역에 다시 한미노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준비와 작업을 위하여 서부의 6개의 대회 (Rocky Mountains, Sun, Southwest, Alaska-Northwest, Pacific, S. California & Hawaii)가 적극적으로 연계해 노회 신설을 진행한다.

### ◆한미노회로의 이전

동부한미노회에서 상정한 특정한 한인교회가 현재 속한 대회나 경계내 대회 내에 한미노회가 없을 경우 대회 경계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한미노회로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헌의안이 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37:2)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되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이에 미국장로교 내의 한인교회들은 한미노회로의 자유로운 이전이 지역 제약 없이 이뤄지게 됐다.

### ◆무슬림 대표 기도 논란과 서기장의 사과

미국장로교는 올해 총회에서도 예년과 같이 용서와 화해 및 평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타 교단 및 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총회는 특히 총회 직전 발생한 올란도 총격사건과 기타 무슬림에 의하여 저질러진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초청된 포틀랜드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를 초청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지도자는 이날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총대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이에 한인 총대들이 주축이 돼 모두 25명의 총대(한인 13명, 미국인 12명)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총회 사무실에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접수시켰다.

공식 편지를 접수받은 총회는 이를 정식 프로테스트(총회 절차의 '정식 항의')로 간주하여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됐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 결과, 무슬림 지도자는 사전에 제출되었던 원고에는 없는 내용으로 단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것이었다. 이에 당시 서기장이었던 그레데 목사는 첫 공식 본 회의가 있던 수요일 오후 준비 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무슬림 지도자에 의하여 상처를 입은 모든 총대들과 참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 ◆개교회 목회와 직접 연관된 안건들

지난 몇 년간 교단 전체가 기도하며 추진해 왔던 Belhar 신앙고백이 이번 총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미국장로교의 헌법 1부인 신앙고백서(Book of Confessions)에 추가됐다.

이번 변화의 특징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아프리카)의 신앙고백이 미국장로교의 헌법에 추가되어 교단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미국장로교 헌법 2부 규례서의 '예배모범'에서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여러 내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신이 우주 창조했다는 증거 있다”

## 미치오 카쿠 교수...보편적 지성에 의한 창조 주장

미치오 카쿠 박사(67)가 “우주가 우연이 아닌 고도의 지능으로 창조됐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보편적 지성’에 의한 창조를 주장해 과학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는 이론물리학계의 석학이자 독보적인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평행우주(김영사, 2006)’의 저자이기도 하다.

‘끈 장론(String Field Theory)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중과학 운동가인 미치오 카쿠 박사는 인류문화연구지구철학회(Geophilosophical Association of Anthropological and Cultural Studies)가 출간한 글에서 “우리는 지능에 의해 창조된 법칙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나를 믿어도 좋다. 오늘날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우연이 아닌 우주적 지능에 의해 형성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계획’ 속에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포시스멘테(ForcesMente)지가 보도했다.

카쿠 박사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존재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끈 장론을 연구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끈 장론은 끈을 양자장론의 도구로 다루는 이론이다.

미치오 카쿠 박사는 지난해 ‘노바 에볼루션(Nova Evolutio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적설계자에 의해 창조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빛보다 빠르다고 여겨지는 타키온(tachyons)이라는 소립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주의 물체를 서로 분리시키거나, 물체의 입자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주변에 존재하는 우주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고 했다.

또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최종 결론은 ‘신은 수학자’라는 것이다. 신의 마음은 11차원의 초공간을 통해 울려 퍼지는 선율의 우주적인 음악과 같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태어난 그는 현재 뉴욕시립대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선정 베스트셀러인 ‘비전’(Vision, 작가정신 2000), ‘아인슈타인을 넘어’(Beyond Einstein, 전파과학사 1993), ‘초공간’(Hyperspace, 김영사 1997) 등이 있으며, ‘래리 킹 라이브’, ‘디스커버리’, ‘사이언스채널’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강혜진 기자

# 교회 및 선교교회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자들을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역을 순증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LA 온하늘교회</b></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b>연재선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LA세계선교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p> <p><b>갈릴리선교교회</b>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b>한현영 담임목사</b></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b>한기형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방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나기도모임 수요일 10:30</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b>서건우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b>나성제일교회</b>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b>김문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b>산타모니카교회</b> 축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b>김경렬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b>써니사이드교회</b>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의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특별 모임 오전 11:00</p> <p><b>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b>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p> <p><b>김영구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화·목·토·일) T.(213)380-0071</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7000/T(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넬릿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p> <p><b>요한 선교교회</b></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b>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p> <p><b>임마누엘선교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흠뻑 소진 초심자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충현선교교회</b>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p> <p><b>민중기 담임목사</b></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b>장지현 담임목사</b></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b>김범수 치과</b> General &amp;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b>김범수 치과</b></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b>대표 주해홍 목사</b></p> <p><b>오늘 성경 읽으셨나요?</b></p> <p><b>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b>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수요공과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화-금)  
금요예배(월-토)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제틀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LA 예배처소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공과(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8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英 현실이 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51.9%가 탈퇴 찬성...EU균열 우려 높아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됐다. EU 회원국이 탈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하게 됐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4일(현지시간) 총 382개 선거구 개표 결과 탈퇴 51.9%(1,741만 742표), 잔류 48.9%(1,614만 1,241표)로 탈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으며, 탈퇴와 잔류의 표차는 125만 9,000표(3.8%)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선탈랜드 등 잉글랜드 동북부를 비롯해 닷산 공장 등이 몰린 지방에서 탈퇴가 우세했다. 웨일스도 탈퇴가 우세했다. 잔류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런던이나 뉴캐슬 지역은 오히려 표심이 약했다. 백인 노동자 층이 많은 런던 교외에는 탈퇴가 과반인 선거구가 속출했다.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EU의 균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혜진 기자

“英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환대 지속해야”

브렉시트 후에... 英성공회와 가톨릭의 공식 반응



저스틴 웰비 대주교 ©영국성공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된 가운데, 영국성공회와 잉글랜드·웨일스가톨릭교회 수장은 “영국이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과 환대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영국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와 잉글랜드웨일스 가톨릭교회 빈센트 니콜라스 추기경은 6월 24일(현지시간)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대주교 공동 선언’에서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동안 입장이 어땠는지, 영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제 관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를 세우며 전 세계 인류의 번영을 위해 헌신해 나가는 공동의 직무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벽이 아닌 지속적인 환대와 공감으로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웃, 친구, 동료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왔고, 그들 중 일부는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각각의 모든 이들에 대한 독자적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비롯해 영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니콜라스 추기경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 달라”면서 “깊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 존중과 공손함을 갖고 이 임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 특히 부정직한 고용주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이 후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또 “영국이 이방인들을 환영하며 필요한 이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우리의 훌륭한 관대함의 전통 위에 세워지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분열이 항상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英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언급해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입을 열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분열이 항상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EU가 갖고 있는 근본이 되는 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합은 충돌보다 언제나 낫다. 형제애가 적대감보다 낫고, 다리가 벽보다 낫다. 창조력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하고 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에서 문제 해

결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자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가톨릭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칼 마르크스 독일 추기경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빈곤층, 취약당한 여성, 강제 노동을 한 어린이들에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는 역대 교황 중 동성애 문제에 가장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성소수자 공동체를 포용하고, 그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소말리아서 IS테러 발생”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의 총기 난사로 최소 14명이 숨졌다. 현지 경찰은 6월 25일(현지시간) 모가디슈 나사-하블로 호텔에서 폭발물

이 실린 차량이 폭발한 뒤 호텔 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이어져 무장 괴한 두 명을 비롯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IS 알샤바브 대변인은,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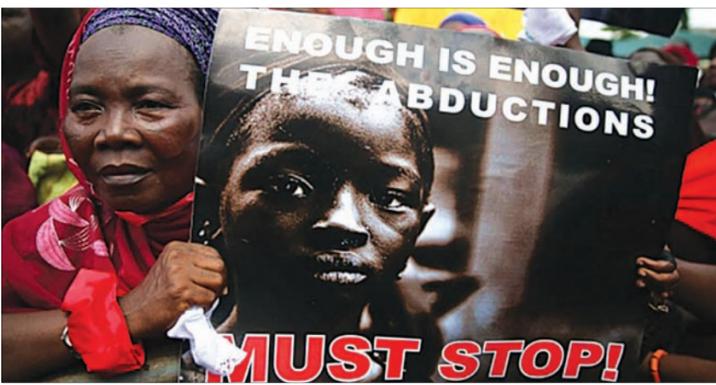
“파키스탄 이슬람 예배음악가 테러로 사망”

파키스탄의 유명 이슬람 종교음악가 가남부 항구도시 카라치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FP통신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은 6월 22일 남성 인기 가수 암자드 사브리(45)가 도심 리아카타바드 지역에서 일행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일행 중 친척인 살림 사브리 역시 총상을 입고 목숨은 건졌으나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을 목적으로 한 테러”라고 AFP에 밝혔다. 암자드 사브리리는 이슬람 예배음악인 ‘

카우알리’를 부르는 유명 가수로,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파 음악의 대표적 실연자였다. 사브리의 아버지 굴람 파리드 사브리도 1970년대부터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유명 수피파 음악가로 활동해 왔으며, 라마단 기간에는 아침마다 고정으로 국영 TV에서 노래한 전설적 카우알리 가수다.

그러나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를 비롯해 이슬람교 공식 교설은 수피파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테러도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의 행위로 추정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 여성이 지난 2014년 4월 인질로 붙잡힌 나이지리아 여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크리스천포스트

### “나이지리아 인도주의적 재난 비상사태 심화”

#### 난민 1천 2백여 명...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인도주의적 재난 비상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 부족으로 1,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의료단체인 MSF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난민들 대부분은 이슬람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에서 MSF 사역을 이끌고 있는 가다 하팀(Ghada Hatim) 대표는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바마 마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팀 대표는 “우리는 마이두구리의 의료시설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많은 죽음을 목격해 온 부모들의 얼굴에서 트라우마도 발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3일 이후 캠프에서 약 188 명이 숨졌으며, 주된 원인은 영양 부족과 설사 등이었다.

하팀 대표는 “우리는 아이들을 포함해 그곳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MSF가 바마 지역의 난민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무덤이 생기고 있다. 어떤 날에는 30명 이상의 난민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BBC뉴스는 2009년 이후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보코하람은 기독교인들, 시민들, 정부 관계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보코하람을 축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으나, 분쟁은 심각한 난민 위기를 낳았고 약 200만 명이 고향을 떠나게 됐다. 바마 캠프는 이 가운데 24,000여 명을 돌보고 있다.

강혜진 기자

### “이스탄불 공항 IS테러 36명 희생”

#### IS테러 잦은 이유... 기독교와 이슬람의 혼란스런 역사

6월 28일 36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태를 당한 터키는 끊임없이 테러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제 정세에 정통한 CNN은 ▲터키가 시리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점,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기독교 문명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IS 무장단체의 표적이 지속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이스탄불 공항 테러 역시 이러한 분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터진해오는 등 IS의 노선과도 같았기 있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 1년간 최소 14차례 이상의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3월에는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에서 자살테러가 일어나 최소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역할을 했으며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터키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성소피아박물관은 동로마제국 당시 537년 성당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오스만제국이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1453년부터는 이슬람사원으로 쓰이는 것이 이를 상징한다. 이외에도 터키는 동서 문명 간의 교류가 많고 융합도 많아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역시 이스탄불 전철역 인근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부상했고, 10월에는 앙카라의 기차역 광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소행이라고 터키 정부는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접경국가인 시리아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와 인접한 수루츠에서 IS 조직원으로 알려진 터키 남성이 쿠르드계 정당 인민민주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겨냥한 자살테러를 감행해 3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터키는 유럽과 중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테러단체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 터키의 남부는 IS(이슬람국가)의 중심축과도 매우 가까이 있으며 중동국가로서 EU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이처럼 터키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터키 정부는 IS 용의자를 끊임없이 체포하고 PKK에 강경 대응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광객들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도에 비해 최소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BBC는 보도했다.

송경호 기자

### “기독교인 가옥 80여 채 방화하며 교회 건축 반대”

#### 이집트 무슬림 군중... 마을 건물의 교회로의 사용에 대한 반발

이집트 무슬림 집단이 알베이다 마을 기독교인 가정 80여 채에 불을 질렀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범인들은 이를 “마을의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려고 한 데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6월 17일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ICC는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6.4km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슬림 군중은 모든 건축 자재를 부수고, 아지즈와 그의 사촌인 무사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이어 인근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집을 약탈하며 불지르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해야 했다.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윌리엄

스타크는 “알베이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좌절을 느꼈다”면서 “이집트 경찰과 정부 당국은 이러한 공격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소수종교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즐기는 반면, 희생자들은 항의도 할 수 없다. 이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2등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면서 “정부는 ‘정의가 대접받고, 이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가 추가적인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지난 5월에는 기독교인이 살던 집 7채가 약탈 및 방화를 당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b>O.C./얼바인 지역</b>	
<b>김철민 장로</b>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b>CMF선교회</b>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b>김일영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T한국학교 토 9:30AM-10:00PM 대학원부E-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지역훈련 화-목 7:30PM
<b>앤드류 김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카데미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종교기도회 7:00pm 토요일전집예배 7:00pm	<b>김영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b>오병의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b>민경업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b>남가주 벤엘 교회</b>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b>나침반 교회</b>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org
<b>박재만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b>허규암 담임목사</b>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b>남가주 순복음교회</b>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bc.com	<b>놀익한인교회</b>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 F.(714)308-7038 / usa8291@gmail.com
<b>안창훈 담임목사</b>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b>김일권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늘푸른선교회</b>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b>다감사교회</b>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b>고현종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b>이서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새벽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b>디사이플교회</b>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b>김한오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사바기도회 새벽 6:00	<b>이동준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s(영)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금요일, 예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b>베델한인교회</b>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b>얼바인 아름다운 교회</b>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b>권혁민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b>홍성준 담임목사</b>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b>얼바인 온누리교회</b>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b>얼바인 한민음교회</b>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b>박경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b>우대권 담임목사</b>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b>얼바인 침례교회</b>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b>영광빛복음교회</b>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0 / (714)833-2568 daekwon.org
<b>김민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유년부, 초·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b>영명인 담임목사</b>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중·고등부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b>예친교회</b>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b>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b>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b>남성수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b>한기홍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b>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b>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b>은혜한인교회</b> 행복한 교회, 삼림만민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b>주희록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b>최혁 담임목사</b>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성령집회 :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b>주님의빛교회</b>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b>주안예교회</b>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b>임경남 담임목사</b>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b>조원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b>토기장이교회</b>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b>하나님의 은혜교회</b>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www.graceofcross.org



# 나는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 최덕신 찬양 콘서트

한국 CCM 선구자로서 주찬양 선교단, 개인 앨범들 그리고 수많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국 교회를 섬겨온 최덕신, 그의 찬양과 나눔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7월 9일 (토) 3pm

### 십자가은혜교회 (담임목사 이민규)

입장 | 무료 (현금시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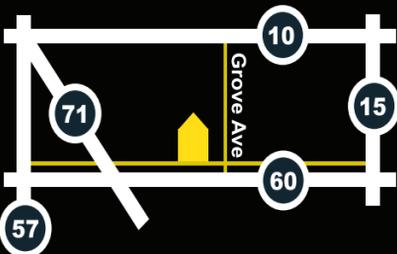
대상 | 누구나

문의 | 310) 850-3109

www.graceofcross.org

#### 교회주소

1147 E Philadelphia St.  
Ontario, CA 91761



최덕신 전도사 | 대한민국 CCM 선구자

대표곡 |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주의 은혜라 등 300여 곡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중략)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십자가은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GRACE OF CROSS CHURCH

### 십자가은혜교회

#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찾아' 독일서 보낸 44년

### 한인 최초로 현지서 목사 안수 받은 ...박옥희 선교사 회고록 펴내

"내가 회고록과도 같은 간증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복음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한인 최초로 독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44년간 복음을 전파해 온 박옥희 선교사가, 자신의 '씩는 밀알의 삶'을 증언한 책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꿈과비전)>를 펴냈다.

1939년 신안군 압해도에서 태어난 박 선교사는 1949년 1월 1일 압해중앙성결교회 신년부흥회를 참석하고 회심했으며, 1955년 복음 전파를 위해 살 것을 결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인 1964년 독일로 떠나, 아그네스 카를 간호학교에 입학했다. 정부에서 독일로 간호사를 처음 파송한 것이 1969년이니, 그 시대에 흔치 않은 유학길이었다.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일의 신학이 우수하리라는 기대감도 컸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은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다. 누막염으로 사경을 헤매던 당시 부모님조차 포기했었지만, 신앙인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6개월이면 낫는다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는 것. 원래 목회자가 되어 선교할 생각이었던 그녀는, 그때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의 터지고 상한 곳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

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이 생겼다고 한다. 그렇게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와 동역하는 간호선교를 꿈꿨다.

부푼 꿈을 안고 힘들게 찾아간 독일이었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부터 생명같이 여기던 '주일성수'를 하려 하자, 간호학교에서는 박 선교사를 '바리새인'처럼 여기고 보내주지 않으려 했다. 병원 옆 채플에 30분만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래도 환자들에게 "30분 뒤 예배드리러 갈 테니 용무가 있으면 지금 말하라"고 선포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온갖 시기 질투와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인 환자들의 말벗이 되고 시편 23편을 읽거나 기도해 주면서 임종 시까지 곁을 떠나지 않으니, 나중에는 박 선교사가 쉬는 날 환자들이 울 정도였다고 한다.

간호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리벤첼(Liebenzeller)선교회 선교신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기숙사와 일체의 숙식비, 학비를 지급했고, 매달 50마르크의 용돈까지 마련해 주면서 공부에만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벤첼선교회는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중국내지선교회 독일지부였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박 선교사는 독일에 더 이상 남아 있고 싶

지 않았다고 한다. 한쪽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이성적 신앙이, 다른 쪽에는 전통과 격식에 매여 죽은 듯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던 독일의 영적 상황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도 모른 채 신학교 학장은 당시 독일 내 7~8천 명의 한국 간호사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제의했다.

그렇게 7년 반 만인 1971년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매주 편지를 보내며 박 선교사를 끝까지 붙잡았다. 결국 1년 2개월 만에 독일로 돌아갔고, 그 직후인 1972년 11월 쾰른엔 루터교회에서 독일복음주의협의회 주관으로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안수를 받은 박옥희 선교사는 쾰른엔에 재독한인선교회를 설립하고, '순회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기초로 순회사역과 문서 선교를 통한 복음전도, 제자훈련과 선교동역자 양성, 성서 연구 등의 목표를 세웠다.

박 선교사는 그곳에서 처음 10년은 독일 전역과 스위스를 걸친 순회전도여행, 그리고 한국 간호사들을 위한 주말 수련회와 성경공부를, 다음 6년은 개척되고 설립된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지막 10년간 한·독 가정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통한 선교사역을 2005년까지 진행했다.



박옥희 선교사는 "독일에서 기차를 많이 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박옥희 선교사는 선교사역 중에 피소드에 대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코스타 집회에서 한 자매가 만삭으로 새벽기도에 늘 저보다 먼저 나왔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속으로 보통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 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 회고했다. 나중에 그 자매는 남편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자녀 2명을 낳은 후 중국 선교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박 선교사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려던 자를 구원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돌이켜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허물 많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상처를 주고받고 자주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

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저를 구원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다"고 고백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는 "박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주일성수라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것과 이로 인해 가정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된 것이 모두 보배가 됐다"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어디든지 찾아갔던 귀한 선교사"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추천사에서도 "이 책의 자서전적 간증은 감동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광범적 섭리의 손길에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이라며 "많이 수고 하였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고맙고 감사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 "2007년 아프간 사태, 선교사 위기관리에 대한 과제 안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이 6월 29일 서울역 그릴에서 회원 교단 총무 및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교 책임자 30여 명을 초청해 '해외선교 위기관

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특히 여름에는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한 활동과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한교연 선교위원장 허상봉 목사는 "각 교단이 효율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 한교연, 회원 교단 선교 책임자 초청해 간담회 개최

고 있어도 각각 이를 시행하기 때문에,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한교연이 위기 발생 시 대정부 청구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은 전대미문의 충격과 혼란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NGO, 선교단체, 정부, 언론계 및 일반 국민에게 선교사 위기관리와 재외국민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겨 주었다"고 했다.

예장 통합 세계선교부 총무 이정권 목사는 "파송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으나, 개교단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미흡한 것

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함께 "한교연과 같은 연합기관은 위기관리 대응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교단 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단기 선교활동 사역자 위기관리 교육 의무화 △선교사역자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성 △교단 산하 단기 사역 실태 파악 △해외 개인 및 단체 여행자 대상 홍보 △위기 상황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개최예배는 한교연 선교교육국장 최귀수 목사의 사회, 김효종 목사(예장 호현 총회장)의 기도, 선교위원장 허상봉 목사의 설교와 주기도문으로 드렸다. 김진영 기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여름 학기  
2016년 6월 20일(월)~8월 26일(금) 수업  
(여름학기 등록마감 6월 20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b>신학 대학교</b> <b>신학 대학원</b>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b>일반 대학교</b>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b>홈스쿨링</b>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사랑

한 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부),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1. 전도용품 새입 맞출함으로 재구매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도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세가지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다발본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원형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후,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김병태 칼럼

### 브렉시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 새벽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영국 국민들은 유럽 경제 통합의 길을 모색해 오던 EU를 탈퇴하기로 선택했다. 공생, 상생, 동반자의 길보다 더 급선무가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28개국과 함께 살아가고 손을 잡았던 EU에서 탈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 글로벌 시대에 영국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현실에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 내지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EU 국가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나마 영국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EU국 국민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다 보니 영국 국민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은 동요했다. '이민이고 난민이고 상생이고 뭐고 다 싫다. 우리가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냐?'

영국 국민들이 EU를 탈퇴하고자 결정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들의 자존심이다. 'EU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했지만, 돌아오는 게 뭐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데? EU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 대영제국의 체면이 손상된 게다. 자존심, 명예, 영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게다. '세계는 하나다'는 이상주의가 무

너지 내렸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건가? 잔류할 건가?'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벌써 재투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립의 길을 선택한 영국이 갈 길도 멀고 험난하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던 영국의 금융산업이 불안해지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큰손들의 움직임들이 부산하다. 해외 투자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판도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하게 된다. 앞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체코에서도 EU 탈퇴 바람이 불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영국을 통해 EU를 움직여 오던 미국에 불똥이 튀었다. 영국이 고립의 길을 걸으니 앞으로 미국은 유럽과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는 그렇다손 치고, 한 개인의 인생 여정도 만만치 않다. 수많은 악재들이 숨어 있고, 베일에 싸인 불확실성 속에서 가슴앓이하고 눈물을 머금고 있다.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라고 예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장벽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사실 어려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부터 정비해야 한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자꾸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



김병태 목사  
성천교회

각과 방법'을 고집하게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잠잠하고 침묵하라고 요청했다. 성도의 침묵은 '저항적 침묵'이 아니다. '무지의 침묵'도 아니다. '자기 성찰의 침묵'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침묵'이다.

우리가 잠잠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우면 '달린 문'이 더 굳게 닫힌다.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감동에 주시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였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성공적인 리더는 자신의 강점에 70%, 약점에 5% 정도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가 내린 리더십의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살리라. 둘째, 자신의 약점을 사랑하라. 셋째, 그 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강점도 약점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단강에 '마른 땅'을 내고 여러고의 닫힌 문을 열어젖힐 뿐 아니라, 철옹성 같은 성벽을 아예 무너뜨리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신다.

때로는 '지루하게 계속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실망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세 동안 동일하게 행했다. 여호수아는 '일곱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났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았다. 아무리 지루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새벽이 되면 움직이실 것이다. 그 때까지 지루하도 답답해도 잘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나 '새벽'에 철옹성 같은 여러고가 무너지고, 사

단이 물러가고, 문제와 어려움이 도망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은총이 내려온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다. 인간의 리듬을 거스르고 본성에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지지도록 분주하게 활동하고 밤늦도록 컴퓨터와 텔레비전이라는 문화생활(?)에 젖어 있는 현대인이, 새벽 시간의 달콤한 잠을 깨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한다.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실 은총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 있지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새벽 시간을 하늘을 향해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열어 드리고 있는가?

•IVY교육칼럼(5) <끝>

### 자녀와의 의사소통

우리세대의 어릴 적 풍경은 밥상에 앉아 부모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맛난 김치를 먹었던 것으로 추억된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 말이 잘 통해야 취업은 물론, 관계 형성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해도 휴대폰을 들고 각자가 제 할 일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은 세대에 관계없이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대학입시도 인터뷰에서 입학이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

말하는 능력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배워지는 것이다. 내 말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언젠가 동료가 틴에이지 아들과

전화통화 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이길래 그렇게 오래 통화하냐고 물어보았다. 아픈 아버지를 위해 메디컬 대학에 간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엄마는 뭘지 모르는데 그냥 들어 주는 거라고 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주는 엄마가 있기에 이 학생은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에게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다. 변호사 직업이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내가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언젠가 엄마 듣고 있어? 그렇게 물어 본 것이 기억나 아들과 길게 통화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권셸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이 세상에서 쓸 만한 사람, 세상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녀들이 남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꼭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간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

부모들은 공부 다음으로 자녀의 스펙을 만들려고 과외 활동, 인턴쉽, 컴피션 등 온갖 정보를 찾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하여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회 진출시 정작 필요한 스펙은 대학 입학 요건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와 비즈니스 에티켓, 회사 업무와 관련된 상식적인 지식 등이 그것이다.

대입 상담에서 빼놓지 않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추천서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원 진학 때에도 추천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교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뒷받침된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것은 단지 말만 잘 하면 되는 기술이 아니다. 감각을 이용한 소통 능력이기도 하다. 해가 거듭 될수록 입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분명 모든 사람에게 인정 받는 인재는 배출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누구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가장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임을 자각하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문의: 949-329-8222  
\*이메일: shelby.moon65@gmail.com  
\*웹사이트: MyIvydream.com



▲콧물빼기 시범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오랜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리셋

김관선 | 두란노 | 256쪽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다. 컴퓨터를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리셋(reset), 즉 초기화를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얽혔던 파일이 제자리를 잡곤 한다. 저자의 진단처럼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리셋이다.



#### 세상을 놀라게 하라

마이클 프로스트 | 넥서스CROSS | 200쪽

마이클 프로스트가 제안하는 가장 선교적인 사람의 5가지 생활 습관, BELLS! Bless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축복한다. Eat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한다. Listen 성령님이 안내하고 지도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Learn 제자를 삼기 위하여, 지도자이며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배운다. Sent 하나님이 파송하신 어디에서든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을 기록한다.



#### 예수, 그 길을 걷다

이승환 | 와웹퍼블 | 256쪽

이 책은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종합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지금도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달한다. 그리고 예수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딪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등에 대한 해답임을 제시한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임덕규 | CLC | 352쪽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그 본질과 의미를 성경 안에서 설명한다. 저자는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담긴 신비를 제시하며, 복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고,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변증학적으로 접근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막막한가? 견디기 어려운가? 바로 그때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가?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보인다. 낮에는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설치고 다니지만, 사실 낮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인생에 밤이 왔는가? 고독한가?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는가? 하나님의 부흥을 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는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 모든 희망의 빛이 꺼지고 보이는 것이라곤 캄캄한 어둠뿐인 것같은 오늘의 현실, 그렇지만 저자는 부흥은 다름 아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이라고, 죽은 것과 다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선포한다. 그렇기에 부흥은 오늘의 현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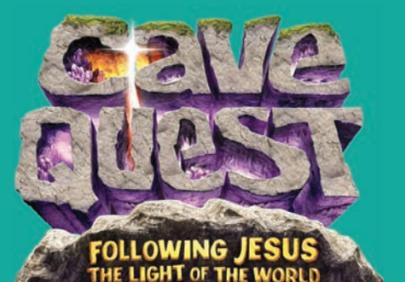
오늘 살 힘 이찬수 규장 | 296쪽

사는 힘이 된다. 저자 이찬수 목사가 전하는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흥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커졌다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무형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불길이 전해지고 전해져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흥이다.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되살아나야 한다. 그 자리 그 부흥의 자리에 서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이 목사는 그러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간곡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 힘이 되는 부흥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찬수 목사는 2002년 5월, 분당우리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분당우리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미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을 견뎌라>, <삶으로 증명하라>, <보호하심>(이하 규장)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 VBS T-Shirt

No Set up fee, Only \$4.50 each!

어린이용 흰색 티셔츠, 100개 이상 주문시



**Special Event**  
어린이 VBS 풀칼라 프린트 티셔츠 100개 이상 주문시 선물용 VBS CD 무료 증정

**VBS CD**  
(Copy & Print)  
\$50 (50개)



VBS, 수련회, 단기선교, 체육행사등을 위한 T-shirts Print!!!  
교회이름 넣어 드립니다. (Custom 디자인)

각종 Invitation card, 판촉물, Banner, 수건인쇄,, 디자인 및 인쇄 가능합니다.

Tel:323.265.0244 ◆ 3170 E. 11th St. LA, CA 90023 ◆ topmedia153@gmail.com

[추천도서]

## “한국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슬람”

이슬람에 대해 바로 알아  
하나님과 알라는 전혀 달라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대부분은 이슬람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3일 파리에서 일어난 수니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로 인해 130명이 사망하고 34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최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동일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슈가 기독교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비슷한 종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꾸란의 60%가량은 구약의 내용과 비슷하고, 18% 정도는 신약성경과도 유사하다.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유해석 생명의말씀사 | 352쪽

꾸란에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기적, 예수의 재림 그 이외에도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주요 교리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달라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 이슬람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직접 경험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오늘날 우리들이 이슬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한국에서의 이슬람 상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저자의 간절한 당부가 이 책에 담겨있다.

“이슬람을 바로 알면, 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영인 기자

[인문고전 읽기]

## “샬롯 메이슨의 교육철학을 만나다”

샬롯 메이슨의 홈스쿨링 지침서  
배움에 대한 ‘사랑’ 강조

이 책은 저자가 샬롯 메이슨(Charlotte Mason) 교육법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종합하여 쓴 홈스쿨링 지침서다.

샬롯 메이슨은 홈스쿨 운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샬롯 메이슨은 19세기 영국의 전통적 교육 흐름에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도전했던, 용기 있는 교육자였다. 그녀는 아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배움을 사랑하도록 도왔다.

샬롯 메이슨은 놀라울 정도로 젊은 나이에 자신의 교육적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녀의 교육 모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교육은 분위기와 훈육과 삶이다(Education is an atmosphere, a discipline, a life).” “교육은 관계의 학문이다(Education is the science of relations).” 학생을 위한 그녀의 모토는 “I am, I can, I ought, I will.” 이다.

그녀에 따르면 아이들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며, 따라서 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아이고 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샬롯은 그 시대에 다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았다. 샬롯은 가난한 자들과 아이들도 학문적으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문학이나 순수 예술을 이해하는 데 뒤처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다(13쪽).”

제니 킹(Jenny King)은 샬롯의 어느 전기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샬롯 메이슨은 아마 박물관, 화랑, 음악회 방문을 주창하고 나선...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런 곳을 다녀 온 이후 그들 자신의 인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 첫 번째 교육자일 것이다(11쪽).”

샬롯 메이슨은 학습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그 기초 전략은 우선 배움에 대한 사랑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지적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self-education)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좋은 습관의 형성은 샬롯 메이슨의 기본적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의무이다. 궁극적으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어린이의 선택이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이런 좋은 습관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잘 자란 아이는 항상 좋은 습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캐서린 레빈스 DCTY | 288쪽

관으로 조심스럽게 훈련된 아이이다(133쪽).”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목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샬롯 메이슨의 방식은 아이들이 항상 새로움을 유지하도록 교과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루함을 피하라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사랑을 죽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지루함이다(129쪽).”

좀 더 고학년이 된 어린이는 스스로 집중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샬롯은 이렇게 말했다.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마칠 만한 가치도 있다. 그리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잘 해낼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다(57쪽).”

이 책의 저자는 샬롯이 <교육 철학>에서 쓴 이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봄이 한 해의 시작이라면 학습은 인생의 시작이다... 청춘 시절에 얻은 것들은 일생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39쪽).” 샬롯에 따르면 교육이란 “많은 진리에 대한 밝은 안목이 자라도록 하는 이해력(48쪽)”이다. 또한 “교육은 지성의 지속적인 전진(83쪽)”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의 기능은 기계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격이 더 고양되면, 어떤 종류의 일이라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다(127쪽).” 그녀의 교육 종착점은 아이들이 “지식을 너무나 즐겨 위하여 평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행복의 원천으로 삼게 되는 데(49쪽)” 있다.

이 책은 ‘살아 있는 책(living books)’을 취하여 아이들의 풍부한 지성과 감수성을 끌어내고, 배움의 열정과 즐거움을 주는 법을 말하고 있다. ‘살아 있는 책’이란 그 책의 주제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대화적 문체로(in conversational or narrative style) 쓴 책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 “하나님 능력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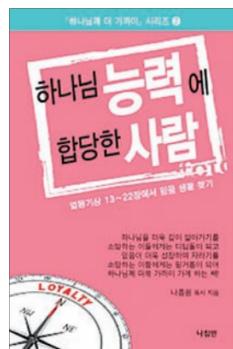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로마서 10:17)라고 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또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 믿음은 정체되거나 그 자리에 멈추어 서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은 매일 자라고 성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들의 바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사도들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갖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절대 필요한 자양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이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저자는 이 교재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능력에 합당한 사람 나종원 나침반 | 128쪽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원한다. 이 교재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저자는 이 교재를 통하여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애썼다.

이 교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한다.

이 교재는 그룹이나 개인 성경 공부용 교재이다. 청년부, 대학부, 구역 성도들, 제자훈련과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성경교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길 바란다.

한편 지은이 나종원 목사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감성을 지녔고, 물질에 대하여는 청렴하여 욕심이 없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목회자이다.

그리고 겸손하고 겸소하지만 진리를 전할 때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가족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로 언제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황금만능주의에 휩싸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청교도적인 청빈한 삶을 생활의 모토로 삼고 나누고 베푸기를 즐겨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성품을 지닌 나 목사는, 목회사역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행복한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말씀 공부 중심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깨우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금요일까지 큐티 말씀을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najong-gg)에 올리고 있다.

이영인 기자

###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mailto: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professionals gathered at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for the recent 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GMMA) Conference.

## Hundreds Gather for Korean American Missions Conference

BY RACHAEL LEE

Some 900 gathered in Irvine, CA on Friday afternoon for the start of the 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GMMA) Conference, which aims to encourage Christians to live missionally wherever they may be.

This is the sixth such biannual conference that has taken place, but the first that has taken place under the name of GMMA. GMMA was birthed out of a first generation Korean organization called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KAMHC), and though KAMHC has hosted numerous conferences for Korean-speaking missionaries and professionals in the past, this is the first that they have hosted primarily targeting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professionals. Organizers say that this year's conference is also not only geared towards those interested or involved in the medical field, but for anyone of any profession.

"My hope is that whoever comes here, they would ask, 'What does God want? What is God's heart for

this world?' And that they would change their behaviors, their daily lives, and truly be transformed to live a missional life," shared Peter Chung, the president of GMMA.

"The medical profession is just the bellweather to bring others, and together, to form a village to transport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Chung further explained.

The conference was kicked off with a session featuring Mi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Lausanne Movement. Oh encouraged the audience to remember that every Christian can live mis-

sionally and radically for Christ.

"You don't have to be a pastor and go to seminary to be a missionary -- there is no profession you can do here that you can't do somewhere else," Oh said. "Missions is simply doing what God has gifted you to do, in the place where the gospel is not yet well known."

The opening session also featured a testimony from Dr. Alex Philips, of New India Evangelical Association, and a time of prayer for the Southern Asian nations led by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The conference, themed "Arise and Shine" based on Isaiah 60:1, concluded on Saturday evening, and featured five main plenary sessions with speakers such as David Gibbons, founder and pastor of Newsong Church.

Attendees were able to choose from over 50 different workshops on various topics highlighting specific regions, including Asia, the Middle East, Europe, and Africa, as well as specific professions or skills, such as eye care, dental, nursing, video editing, and acupuncture, among others.

## PCUSA Considers Forming New Non-Geographic Korean Presbytery

BY RACHAEL LEE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 has approved a recommendation during the recent General Assembly that encourages synods in the Western region to consider creating a non-geographic presbytery for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and to create a staff position that would work as a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denomination as a whole to the Korean congregations and presbyteries.

The overture was submitted by the Task Force for Korean Speaking Congregations, an entity within the PCUSA which was formed in 2014 to study how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could thrive within the denomination as healthy members. It was approved by the Mid Councils Committee unanimously by a 44-0 vote, and by the General Assembly via voice vote.

To note, a non-geographic presbytery for the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in the Western region called the Hanmi Presbytery had previously existed, but was dissolved during the 221st General Assembly in 2014 due to "problems of conflict and power struggles," according to Doska Ross, who was the executive and stated clerk for the 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at the time. The congregations that were a part of the Hanmi Presbytery at the time were then transferred into their respective regional presbyteries.

However, the Task Force -- which was formed in lieu of the dissolution of the Hanmi Presbytery -- noted in the overture that it found that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face multiple barriers that hinder clear communic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 denomination as a whole (particularly, the overture says, regarding the issues of ordination and marriage), as well as barriers that prevent them from participating fully in the denomination.

Some of those barriers, the over-

ture states, include a lack of fluency in English and the impression that the language barrier may give; a lack of fluency in the denomination's polity; and "feeling uncomfortable and unsafe in addressing issues of theology, particularly due to the fear of being stereotyped or labeled," among others.

Appointing a staff member that works on a national level would ensure that communication between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and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denominational positions and changes would be clearer, the Task Force states, and allowing a non-geographic presbytery in the Western region would allow Korean congregations to become more involved in the denomination.

### *Korean Task Force report also discusses churches' concerns on ordinations, marriages*

"The task force recognizes the difficult decision the 221st General Assembly (2014) made to dissolve the Hanmi Presbytery. It does not wish to recreate a situation that needed to be addressed by that action," the overture states. "Rather, it urges consideration of whether a new beginning is possible, one in which a healthy presbytery can be created that fully respects and is committed to doing in its work in a manner that respects our polity and commitment to full participation by all who God calls into ordered ministry."

The approved overture directs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o create a staff position which would work with the Office of Mid Council Ministries and 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 to support Korean-language and second-generation Korean congregations. It also asks synods in the Western

region to "intentionally consider the viability of creating a new Korean, non-geographic presbytery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Meanwhile, one of the issues that the Task Force mentioned as particular concern for the Korean congregations is the issue of whether pastors and congregations can act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regarding ordinations and marriages. It went on to explain that "while confusion as to these issues is very real, the task force finds that the concern that freedom of conscience will be lost is unfounded," mentioning portions of the denomination's polity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response to the concern that the local, state, or national law may require pastors to participate in ordinations or marriages against their conscience, the Task Force referred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its 2015 ruling that legalized same-sex marriages, which states that "religions, and those who adhere to religious doctrines, may continue to advocate ... that ... same-sex marriage should not be condoned. The First Amendment ensures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ersons are given proper protection as they seek to teach the principles that are so fulfilling and so central to their lives and faiths."

However, at the time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same-sex marriages, dissenting judges also voiced concern for the lack of religious liberty protections made in the majority opinion.

"The majority graciously suggests that religious believers may continue to 'advocate' and 'teach' their views of marriage," wrote Chief Justice John Roberts in the dissenting opinion. "The First Amendment guarantees, however, the freedom to 'exercise' religion. Ominously, that is not a word the majority uses."

These and other portions were not mentioned in the Task Force's report.

##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Confesses and Repents of Racial Sins

### *Korean Americans join in repentance via separate overture*

BY RACHAEL LEE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approved overtures on June 23 that recognized and confessed of historical and continued racism in the denomination, and called on member presbyteries and churches to work toward racial reconciliation.

40 overtures from different presbyteries have been submitted to this year's PCA General Assembly regarding racism and racial reconciliation, and one overture was approved by 861 to 123 vote, also approving all of the other overtures related to race.

The resolution was particularly lauded for its explicit mention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failure of the denomination's founding leaders to stop racism during the historical period, though the denomination itself was founded after the Civil Rights Movement was concluded.

"The members of the PCA are increasingly aware that during the Civil Rights period, many of our founding denominational leaders and churches not only failed to support, but also actively worked against racial reconciliation in both church and society through sins of commission and omission, including: barring African Americans from worship services; misusing and twisting the Bible to support racial segregation; participating in and defending white supremacist organizations; and failing to speak out against state-supported segregation and to support efforts to secure access to basic human and civil rights," the overture states.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es that the sins of racism and racial injustice -- not only toward

African Americans, but also toward other racial minorities -- are not simply past sins, but continue to be sins with which our churches and congregants wrestle," it adds.

"Be it further resolved, that this General Assembly does recognize, confess, condemn and repent of past failures to love brothers and sisters from minority cultures in accordance with what the Gospel requires, as well as failures to lovingly confront our brothers and sisters concerning racial sins and personal bigotry, and failing to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and correct oppression (Isaiah 1:17),' the overture continues.

The issue was initially considered during last year's denominational gathering, but the PCA deferred the apology to this year's meeting to ensure that it's "heartfelt and accurate," according to Christianity Today.

The overture calls on leaders of presbyteries and congregations to let their respective members know of the resolution, and to allow each to "prayerfully confess their own racial sins as led by the Spirit and strive towards racial reconcil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the love of Christ, and the glory of God."

Among the numerous overtures calling for racial reconciliation was one submitted by the Korean Southwest Orange County Presbytery, which included a portion specifically mentioning the racial sins of the Korean community.

"Ethnic Korean and Korean American Teaching and Ruling Elders recognize our own complicity and role in perpetuating oppression, and confess our indifference and inaction toward the plight of our Black brethren," the resolution states.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 Pharmacy Declined Hearing Regarding Religious Objection to Contraceptives

BY CHRISTINE KIM

The U.S. Supreme Court declined to hear a case brought by a family-owned pharmacy in Washington that cited religious beliefs as the basis for refusing to provide emergency contraceptives.

The case was brought by a Christian family -- the Stormans -- who owns Ralphs Thriftway, a grocery store and a pharmacy.

In 2007, Washington state enforced a regulation that requires pharmacies to have in stock all drugs and that pharmacies cannot "refuse to deliver a drug or device to a patient because its owner objects to delivery on religious, moral or other personal grounds," the

regulation reads.

The Stormans family challenged the regulation in objection to having to provide Plan B or other emergency contraception, saying that doing so violates their belief that life begins at conception.

A federal district judge struck down the regulation, saying that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However, in July 2015,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reversed the ruling, upholding the requirement that all pharmacies deliver all prescribed drugs.

The Supreme Court's inaction leaves the current law in place, allowing the state to enforce its own law.

"If this is a sign of how our religious

liberty claims will be treated in the years again, those who value religious liberty have cause for great concern," Alito said in his 15-page dissent released on Tuesday. "The dilemma this creates for the Stormans family and others like them is plain: Violate your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or get out of the pharmacy business." He was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Roberts and Justice Clarence Thomas in his dissent.

Alito also mentions that the drugs the Stormans objected to having in stock was stocked by "more than 30 other pharmacies within five miles" of the pharmacy owned the by the Christian family.

# Texas Laws on Abortion Clinics Ruled Unconstitutional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exas abortion restrictions on Monday that mandated hospital-like surgical standards and hygiene in clinics and access to emergency hospitals, which sponsors of the bill say are to protect women against botched abortions.

The first regulation required abortion clinics to be certified as ambulatory surgical centers, and the second made it mandatory for doctors who perform abortions at clinics to have admitting rights at nearby hospitals where patients could be taken in case of complications.

The court, in its 5-to-3 verdict, ruled that the Texas government imposed the restrictions only to reduce abortion access and not out of concern for women's health.

The regulations in Texas would have closed down most abortion clinics, abortion advocates say.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se regulations were "undue burden" on women trying to end their pregnancies.

"The surgical center requirement, like the admitting-privileges requirement, provides few, if any, health benefits for women, poses a substantial



(Photo: Univ. of Toronto Students for Life / Kate Ausburn / CC)

obstacle to women seeking abortions, and constitutes an undue burden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do so," said Justice Stephen G. Breyer who wrote for the majority.

As the mandate on abortion clinics in Texas is struck down, the court is expected to dismiss similar laws in seven other states which have lawsuits filed against them for regulating abortion clinics.

Justice Clarence Thomas opposed the majority verdict and said in his dissenting opinion that the court applies different rules for different constitu-

tional rights.

"As the court applies whatever standard it likes to any given case, nothing but empty words separates our constitutional decisions from judicial fiat," he wrote.

"The decision erodes States' law-making authority to safeguard the health and safety of women and subjects more innocent life to being lost," said Texas governor Greg Abbott regarding the ruling. "Texas' goal is to protect innocent life, while ensuring the highest health and safety standards for women."

# Obama Administration's Executive Order on Immigration Blocked

BY CHRISTINE KIM

The Supreme Court has deadlocked over a case regarding President Barack Obama's immigration plan, it announced on June 23, blocking the plan from taking effect which would have allowed undocumented immigrants to receive work permits and protected over four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from deportation.

The 4-4 split vote was announced with a one-sentence ruling that reads, "The judgment is affirmed by an equally divided court." The tie vote leaves in place a lower court ruling made in 2015 that ruled against Obama's executive order.

"This is a ruling that affects millions of American families, but because the Supreme Court does not have its full complement of nine justices, the court was unable to deliver a definitive ruling a case of such national importance," said president of Constitutional Accountability Center Elizabeth Wydra, referring to Justice Antonin Scalia's death this past February.



(Photo: NAKASEC) Immigration activists held signs in support of DAPA in Annandale, VA.

"It is heartbreaking for the millions of immigrants who've made their lives here, who've raised families here, who hoped for the opportunity to work, pay taxes, serve in our military, and more fully contribute to this country we all love in an open way," said President Obama, according to USA Today.

Obama announced his immigration programs via an executive order in 2014. Immediately, a coalition of 26 states, including Texas, blocked the plan on the basis that the president

overstepped his power in attempts to bypass Congress.

In 2015, a federal judge blocked the plan from taking effect, siding with the states.

The program, called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or DAPA, would have offered protection to parents of children who are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from deportation and provided a renewable work permit for three years.

# Affirmative Action in U. of Texas Upheld

BY CHRISTINE KIM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University of Texas' affirmative action program on June 23, allowing the university to consider race and ethnicity in the admissions process.

By a 4-3 vote, the justices voted in favor of the program. Justice Elena Kagan recused herself due to her prior position as solicitor general during which she had worked on the case.

Justice Anthony M. Kennedy wrote the majority opinion. He was joined by Justices Stephen G. Breyer, Sonia Sotomayor, and Ruth Bader Ginsburg.

"A university is in large part defined by those intangible 'qualities which are incapable of objective measurement but which make for greatness.' Considerable deference is owed to a university in defining those intangible characteristics, like student body diversity, that are central to its identity and educational mission," he wrote. "But still, it

remains an enduring challenge to our Nation's education system to reconcile the pursuit of divers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omise of equal treatment and dignity."

Justice Samuel A. Alito Jr., however, contended that the university had not specified its reasons for its affirmative action program, saying "the university has still not identified with any degree of specificity the interests that its use of race and ethnicity is supposed to serve," in his 51-page dissent. He was joined by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and Justice Clarence Thomas.

The University of Texas' admissions program, also called the Top 10 Percent program, allows for the top students in every high school in the state to be admitted into the university. The remainder of the freshman class is admitted under a more holistic review that includes academic achievements, like SAT scores, and race and ethnicity.

Abigail Fisher, a white woman who

was denied admission to the university, brought the case in 2008, the grounds that she was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admissions process because of her race.

"I am disappoin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students applying to the Univ. of Texas can be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or ethnicity. I hope that the nation will one day move beyond affirmative action," Fisher said in a statement.

In 2013, the Supreme Court sent her case back to the lower courts after the 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decided the program to be constitutional. The lower courts, again, af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gram, prompting Fisher's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ban the consideration of race in the admissions process of public universities include Arizona, California, Florida, Michigan, Nebraska, New Hampshire, Oklahoma and Washington.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fc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Father's Day & 졸업시즌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1,000,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